

쉐이시 경찰국장의 간 암 4기

생명의은인인권 닥터를볼 수가 있어서너무 감사합니다

쉐이시 경찰국장의 간 암 4기 #### 2018년 구정이 다가오는 날... 도시는 벌써 설날 기분으로 철문을 내리고 많은 분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 했습니다. 설날 전에 중국인들에게는 재미있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습관 중의 하나가 설날 앞, 뒤 15일 간격으로는 병원에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것 입니다. 이 기간 동안 병원에 가면 1년 내내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을 다닌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기간에는 병원에 가지 않는 좋은(?)관습이 있습니다. 응급 상황이 아니면 병원을 오지 않아서 닥터에게는 설날 7일전부터 휴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. 저 또한 출근해서 설날 보너스 받은 기분으로 그 동안 밀린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.

컴퓨터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정리 하다가 나온 사진 한 장..... 2016년 초가을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. 이 사진은 잔잔한 미소를 만들어 주었던 추억이 떠오른 사진이었습니다. 이 사진의 이야기는 2014년으로 올라갑니다. 한국 평택에서 농부로써 삶을 살겠다고 열심히 닭들과 놀기도 하고 실험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중국으로부터 메일이 들어왔습니다. 들어온 e-메일의 시작으로 쉐이시(서안에서 4시간 떨어진